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34호 [루체 제23086호] 주제99 (2010)년 5월 14일 (금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장군님의 물결의 업적을 대고 조승리로 빛내이자

불패의 조중친선은 영원하다

세기를 이어 혁연적 뉴대로 빛나는 전무후무한 친선관계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 공식방문하신 경동적인 소식은 지금 온 나라 인민을 무한한 환희로 들게 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이번 중국방문은 조중 두 나라로 세계평도자들께서 간고한 혁명투쟁의 혈전속에서 맷으시고 공동의 세부로 꽂워워주신 친선이 야말로 그 무엇으로써도 끝릴수 없이 굳건하고 위대하며 대를 이어 끌임 없이 발전하고 있는 영원한 친선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혁사적 사변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치적하시였다.

「우리 두나라는 산과 강이いた달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며 조중친선은 두나라로 세계대혁명가들이 끌려온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

조중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만 아니라 전투적우의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전례 찾아볼수 없는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계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의 세계평도자들께서는 일찍이 반제반제의 전통에서 벗어나는 혁명투쟁을 통하여 세계평도자들과 함께 혁명투쟁을 벌여온 혁명군의 우수한 혁신성을 인정해주시면서 친선과 협력으로 함께 혁신을 이어나가고 있다.

우리 인민은 당시 새 조국건설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경애하는 수령님의 호소를 받들고 뜨겁게 달아온 건국의지를 풍동원하여 중국인민의 정의의 위엄을 몸집으로 드러냈다.

우리 당과 정부의 사십없는 지지성원을 두고 중국의 맥락동주식과 주은폐총리는 중국인민공화국의 오성홍기에는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의붉은 피가 스며있다고 절절히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국의 항일련군부대들과 손을 잡고 사선의 고비를 함께 해치시며 동만과 남북만에서의

여러 원정들과 공동군사작전들을 습격으로 조직지휘하여 항일련합전선을 틀어나가니 일제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기시였다.

성스러운 반일 항전의 나날에 조중 두 나라 혁명의 승리와 공동의 혁명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투쟁한 장율화별사를 비롯한 중국의 많은 혁명가들은 조중친선의 상정으로 떠나고 있다.

두 나라 혁명가들이 인민들은 일제가 폐탕한 후 중국에서 일어난 국내전쟁때에도 함께 싸우며 항일항전의 날에 떠나온 국제주의적의리와 우정을 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한 혁사적 사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항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치적하시였다.

「우리 두나라는 산과 강이いた달아있는 친선적인 린방이며 조중친선은 두나라로 세계대혁명가들이 끌려온 귀중한 공동의 재부입니다!」

조중관계는 지리적으로 가까워서만 아니라 전투적우의와 진실한 신뢰로 굳게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전례 찾아볼수 없는 특수하고 공고한 친선관계로 발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의 세계평도자들께서는 조중인민들이 훌륭한 오늘도 두나라의 광야와 산천, 거리와 마을들에 력력히 이어있으며 여기에서 풋迠난 영웅적위훈답과 미답들은 조중인민을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주었다.

반제계급 투쟁의 전선에서 떠나온 조중 두나라인의 혁연적 뉴대로 친선관계의 전통은 두나라 평도자들의 각별한 동지적 신뢰와 혁명적의리를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이 강화되어왔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38 (1949)년 9월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시고 보택동주석, 주은폐총리와 첫 상봉을 하신 때로부터 두나라 평도자들께서는 외교판례나 격식을 초월하여 서로 자주 폐왕하고 우애의 정을 두터이 하면서 조중친선관계의 공고발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4년 10월과 1975년 4월 등 대회와 대회를 이어 세속화된 중국방문의 나날 두 나라 판례발전의 초석을 틀어놓았다.

우리의 당과 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이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는 조국

은 중국동북해방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온 장축, 김립, 심양에 방전후는 물론 중국판내에 멀리 해남도까지의 우수한 투쟁을 통하여 두려운 동지적의리와 혁제적우정을 맷으시고 조중친선관계의 빛나는 혁사적 전통을 반대하는 조중

두 나라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과정에 맷어야 맷을 수 없는 동지적관계로 결합되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맷을 수 없는 동지적관계로 결합되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는 맷을 수 있는 조중친선은 대회에서 서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은 내내 외정책적 문제들에서 서로 지지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조선과 중국은 조중친선과 조중친선관계를 비롯한 중국의 세대 평도집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폐총리와 함께 조중친선관계의 혁명적의리를 기리고 있고 안전과 위험을 같이하는 전투적 친선관계를 조중인민들을 하나로 결집시키고 있다.

2000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1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2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3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4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5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6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7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8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09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0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1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2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3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4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5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6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7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8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19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0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1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2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3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4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5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6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7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8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29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0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1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2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3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4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5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6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7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8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39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0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1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2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3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4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5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6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7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8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2049년에 진행된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중친선과 강택민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중친선관계의 불평등 할 조중친선의 뜨거운 정을 수놓으시였다.

위 대 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료녕성당과 심양시당에서 성대한연회를 차리였다.



위대한 경도자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료녕성당과 심양시당에서 성대한 연회를 차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환영하여 노령성당과 심양시당에서 성대한연회를 차리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북릉공원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북릉공원을 돌아보시였다.



위 대 한 령 도 자 김 정 일 동 지 깨 서 료 병 어업 그룹 을 참 관 하 시 였 다 .



심 양 시 의 일 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중국방문성과를 스위스단체들 열렬히 축하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3일부터 7일 까지 중국인민공화국을 비공식 방문하신것과 관련하여 스위스조선위원회와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일동지께서는 베이징에서 호금도주석과 중국의 지도간부들과 상봉하시었으며 대변시와 천진시, 싱양시를 방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에서 더욱 강화발전시키려는 힘장을 표명하였다.

며 대회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조선의 기본립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시면서 조선족은 각족과 함께 6자회담의 제재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할 용의를 표명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청원하신 힘장을 중국측을 지지하였다.

상방은 전통적인 조증친선을 더욱 확보해나갈 것을 기록하고 성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

조증친선은 두 나라 인민들의 항일투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통해 공고발전해 왔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호금도주석이 다시금 조선을 방문할 것을 초청하였으며 호금도주석은 이에 사의를 표시하고 초청을 폐지 수락하였다.

상방은 전통적인 조증친선을 더욱 확보해나갈 것을 기록하고 성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두 나라사이

부강번영의 새시대를 펼치는 위대한령도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위인 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혁명의 전두에 놓여 모시고 미래에 대한 신심과 약관에 넘쳐 강성대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 그 러데를 찾아볼수 없는 제3군과 시련을 이겨낸 조국땅우에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다.

정치학 교수 한진수는 「이북 강성대국은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이 이북이 이제 경제강국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만단을 해치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매진하는 이북의 현실은 승천하는 통의 기상이다. 한달을 허기지 않았던 강성번영의 새시련을 열어나가는 시경에 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정에 넘쳐있다.

그들은 한 걸 가로

김정일장군께서는 비범한

예지와 든든한 배심, 로숙하고 세련된 맹도로 이북을 모든 분야에서 최강의 위력을 지닌 주체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떠세우신다. 「김정일시대의 궁극적 목표는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 「미지 않아 세계는 강성번영하는 조선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격동된 심정들을 토로하고 있다.

정치학 교수 한진수는 「이북 강성대국은 성공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사상강국, 군사강국이 이북이 이제 경제강국으로 솟구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만단을 해치고 강성대국건설에로 매진하는 이북의 현실은 승천하는 통의 기상이다. 한달을 허기지 않았던 강성번영의 새시련을 열어나가는 시경에 하는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토의 정에 넘쳐있다.

그들은 한 걸 가로

김정일장군께서는 비범한

을 따라 강성대국의 새시대를 펼치기 위한 대진군을 힘차게 벌리고 있다. 자기령도자와 자기힘을 믿고 고난과 시련을 맞받아 냉고나가는 이 영웅적 투정신은 세상을 놀래우는 비약을 창조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서울의 한 법학교수는 「김정일령수님의 두려움에 일심 일체로 굳게 웅쳐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이북민족의 투쟁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면서 이렇 게 말하였다.

「시련을 겪으면서도

자기 힘을 믿고 번영할 희망을 내달리는 우리 공화국의 혼연파워를 목격하면서 남녀겨레들을 온 경애하는 장군님의 탁월한 영도아래 이 땅에 솟아오를 강성대국의 친란한 밤을 확신하고 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평론가는 자기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오늘 이북은 국제사회에 가장 강대한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 이북은 제국주의자들의 반사회주의적 행동에도 굽하지 않고 민족의 혼연파와 나바의 저주로 해치운 이북민중, 기적같이 이웃구쳐 올라 강성대국건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이북민 중을 보며 무한한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그들은 한 걸 가로

김정일장군께서는 비범한

민족교육차별정책을 폭로단죄

세일동포들이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문제해결을 위한 투쟁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효고현 니시고베·스마타루 미지역 동포들은 4월 23일 일본본부의 조선학교에 대한 부당한 차별책 등을 규탄하여 선전활동을 벌였다.

네성동맹 효고현 본부·성원들, 니시고베조선초중급학교 교직원들과 어머니회·성원들은 선전물을 통해 일본당국의 민

족교육차별정책의 부당성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들은 선대들처럼 민족교육교수와 조선학교 미폐를 위해 굽침없이 싸워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4월 26일 촌련 이마지부부관부 일군들과 동포들은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함께 이마지부족에게 역주연으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사회적여론을 확대하기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조선학교판을 제외하는 것은 차별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밝은 미래를 지향하는 학생들에게 차별이라는 상처를 주면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한 걸 가로

김정일장군께서는 비범한

남조선에서 미제침략 군에 의해 매항리 폭격만행이 저질러진 때로부터 10년이 되었다. 2000년 5월 8일 미공군군소속 「A-10」 전투폭격기가 경기도 화성군 우성면 매항리의 쿠니사기장에서 실전용 대형폭탄 6개를 떨구었다. 요란한 폭음에 놀란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대피하다가 1명이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매항리 1리와 5리 등 5개 마을에서 2000제의 동나들이 심하게 파손되었다.

미국의 남조선 강점자는 살인과 강탈, 폭행을 비롯한 오갖 범죄로 얼룩진 피의 역사이다.

미국이 강점한 첫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해 무고한 민인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피와 탈락 등 재난이 그친 날이 없었다. 매항리 폭격만행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른 치열리는 범죄의 한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특급범죄자로서는 미제침략군에 대해서도 남조선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범죄자증거」이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끌고나가며 애간간 민족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거족적 투쟁을 벌리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당

행을 두고 당시 세계의 공정한 여론과 남조선사회 각계는 한결 같이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북침전쟁 소동이 빛어 번졌다. 「필연적인 사건」이라고 일제히 규탄하였다. 60여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남조선 강점자는 남녀 인민들에 대한 치열리는 살인과 강탈, 폭행을 비롯한 오갖 범죄로 얼룩진 피의 역사이다. 미국이 강점한 첫 날로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남조선에서는 미제침략군에 의해 무고한 민인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었으며 피와 탈락 등 재난이 그친 날이 없었다. 매항리 폭격만행은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저지른 치열리는 범죄의 한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남조선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특급범죄자로서는 미제침락군에 대해서도 남조선에서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범죄자증거」이다. 때문에 지금 남조선인들은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끌고나가며 애간간 민족자주권을 되찾기 위해 거족적 투쟁을 벌리고 있다.

우리 민족은 80여년전 광주에서 일본강제노동자들이 한 조선인 학생을 희생한 것을 참을수 없는 민족적 모욕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의

잔명부지의 명줄로 부여잡고 있는 해국역적들이

반미투쟁을 부르는 매향리의 참변

지금도 우리 겨레의 기억속에 생생한 윤금이 살해 사건과 미군강차녀 중 학생 살살사건은 피를 풀기는 살인마, 남조선인민들의 폭행과 학살로 숨진 사람을 범죄로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있는 북남수뇌상봉과 공동선언 발표후 조선의 통일위업이 전진하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의 정신에 맞게 조선의 통일위업이 전진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미제침략군의

잔명부지의 명줄로 부여잡고 있는 해국역적들이

그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그들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